

종돈장의 분포와 종돈 판매 실태

1. 종돈장의 분포

국내 종돈장에 관한 자료는 금년 2월에 농림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서 종돈농가로 신고된 농가는 (표 1)의 규모별·도별 종돈 농가 신고 현황에서 보듯이 117개로 나타났으며, 충남이 25개, 경남이 20개, 경기가 18개 종돈장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종돈업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종돈을 판매하는 농가나 1대 잡종돈이 아닌 합성돈을 판매하는 농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보다 많은 농장이 종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 윤 식 부장
한국종축개량협회

〈표 1〉 규모별·도별 종돈농가 신고 현황

| 도별 규모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50~100 | - | - | - | 8 | 1 | 6 | - | 4 | 1 | 20 |
| 101~150 | - | 1 | 1 | 4 | 4 | 3 | 3 | 2 | 1 | 21 |
| 151~200 | 2 | - | 3 | 6 | 1 | 3 | 2 | 1 | 1 | 22 |
| 201~300 | 5 | 1 | - | 4 | - | 3 | 1 | 5 | 2 | 20 |
| 301~500 | 3 | - | - | - | - | - | 1 | 3 | 1 | 8 |
| 500이상 | 4 | 1 | 5 | 3 | 1 | 1 | 4 | 5 | 2 | 26 |
| 합 계 | 18 | 3 | 9 | 25 | 7 | 16 | 11 | 20 | 8 | 117 |

2. 우리 나라 종돈업의 문제점

종돈의 생산체계는 핵돈군, 증식돈군, 실용축군의 3단계 피라미드식 사육형태로 되어있다.

덴마크는 23,000천두를 연간 도축하는데 필요로 하고 있는 핵돈군이 42개 종돈장에서 총 빈돈 7,5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180개 종돈장에서 42,000두의 중식돈을 사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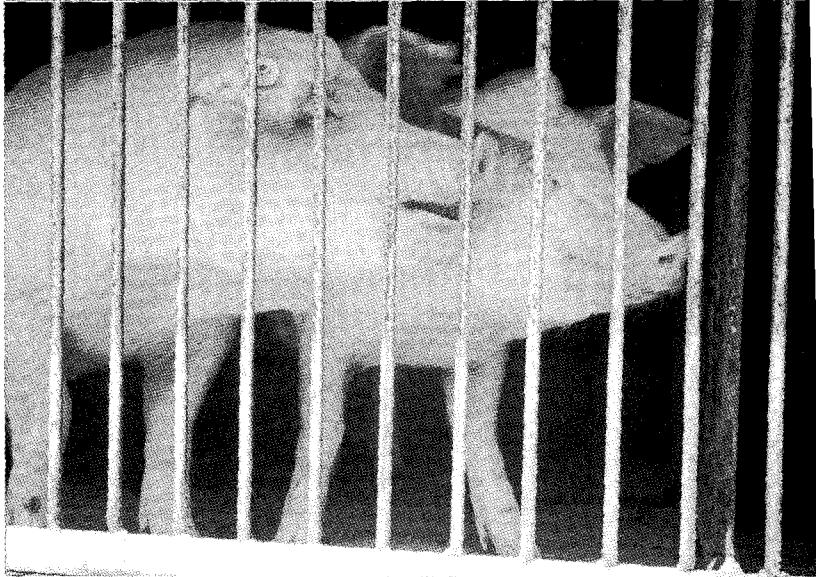
여기에서 생산된 1대 잡종 돈이 19,00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모돈두수는 110만두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4,324천두를 연간 도축하고 있는데도 순종돈을 생산할 모돈두수가 13,744두이고, 중식돈군의 두수는 32,145두로 파악되었다.

국내에 필요한 원종돈은 6,500여두만 있어도 가능한데 유전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식돈군에 필요한 두수는 65,000여두가 필요하지만 이보다 적은 모돈수를 확보하고 있음은 비육농장에서 1대 잡종돈이 아닌 자가생산용 어미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돈장의 사육 형태를 보면 12개 종돈장만이 순종돈을 생산하고 있고, 74개 종돈장은



◀우리 나라는 14,324천두를 연간 도축하고 있는데도 순종돈을 생산할 모돈두수가 13,744두이고, 중식돈군의 두수는 32,145두로 국내에 필요한 원종돈은 6,500여두만 있어도 가능한데 유전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순종돈과 1대 잡종돈을 함께 생산하고 있으며, 1대 잡종돈을 생산하는 33개 농장으로 비전문화 종돈장의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이중에서 농가는 종돈을 판매하지 않고 자급 자족하는 농가도 있고, 이미 비육농가로 전락한 농가도 있다.

종돈업체의 평균 모돈 사육 규모는 492두이지만 300두 이하의 종돈장도 54개나 되어 체계적인 개량사업의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년도에 능력 검정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29%인 34농가로 저조한 실정이며, 혈통등록을 100두 이상 실시한 농가는 32%인 37농가로 종돈사업의 기본인 등록사업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3. 종돈 판매 실태

종돈 판매는 종돈장별로 다양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1대 잡종돈은 비육돈가에 비례하여 분양하고 있는 농가 많고, 순종돈은 능력 검정성

〈표 2〉 지육단가별 1대 잡종돈 가격

| 지육단가(원) | 풀명 1 | 풀명 2 | (단위:원) |
|-------------|---------|---------|--------|
| 2,000~2,099 | 300,000 | 320,000 | |
| 2,100~2,199 | 310,000 | 330,000 | |
| 2,200~2,299 | 320,000 | 340,000 | |
| 2,300~2,399 | 330,000 | 350,000 | |
| 2,400~2,499 | 340,000 | 360,000 | |
| 2,500~2,599 | 350,000 | 370,000 | |
| 2,600~2,699 | 360,000 | 380,000 | |
| 2,700~2,799 | 370,000 | 390,000 | |
| 2,800~2,899 | 380,000 | 400,000 | |
| 2,900~2,999 | 390,000 | 410,000 | |
| 3,000~3,099 | 400,000 | 420,000 | |
| 3,100~3,199 | 410,000 | 430,000 | |

적에 따라 차별 가격을 두고 거래하고 있다.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농장의 순종돈 거래는 계약농가를 우선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구입 물량이나 100% 종돈 구입농장, 입금방식에 따라 약간의 가격을 조절해 주고 있다.

거래 시기는 100kg을 전후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색돈의 경우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능력에 따라 차별 가격으로 거래되고, 초과된 중량에 대해서는 kg당 2천원에서 3천원을 추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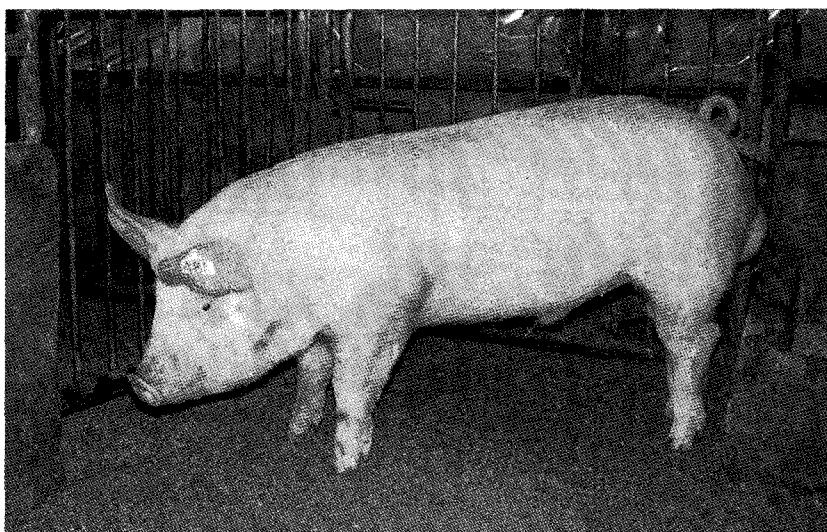
종모돈은 두록의 경우 80만원 전후에 많이 거래되고

있으나 종돈장별 종돈의 능력 검정 성적에 따라 40만원에서부터 16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또한 인공수정용 종모돈은 130kg 전후에 거래되며, 승가 훈련 여부와 능력에 따라 종돈장별로 85만원부터 16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대 잡종돈의 경우 지육가격에 따라 가격 연동제를 채택하는 종돈장이 많은데, 지육가격이 3,000원을 기준할 경우 종돈장별로 33만원에서 4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위생시설이 열악하고 부모의 혈통이나 능력을 알 수 없는 순종돈이나 1대 잡종돈의 가격은 조사되고 있지 않으며, 비육돈 출하가격



▲종돈 판매는 종돈장별로 다양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1대 잡종돈은 비육돈가에 비례하여 분양하고 있는 농가가 많고, 순종돈은 능력 검정성적에 따라 차별 가격을 두고 거래하고 있다.

보다 상회할 경우 적은 두수
이지만 거래되고 있다.

(표 2)는 D종돈장에서 지
육단가별 1대 잡종돈 판매가
격을 인터넷에 예시한 금액이
다. 지육단가가 2,000원이면 30
만원에서 32만원에 팔고, 3,000
원이면 40만원에서 42만원에
1대 잡종돈을 팔겠다는 연동
가격을 예시한 사례이다.



4. 종돈업의 신고기준

축산법에 종축이란 정의를
보면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등
록기관에 등록을 하거나 검
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4조
(종축업의 신고 등)에 종돈
50두 이상의 종돈업은 신고기
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
고 종돈 등록기관의 등록증명
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 ·

▲축산법 시행규칙 제24조 (종축업의 신고 등)에 종돈 50두 이상의 종돈업은 신고기
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종돈 등록기관의 등록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
장 ·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
다.

제24조와 관련하여 종축업
의 신고기준으로

가. 방역 및 위생을 위한
다음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1) 사업장의 정문 및 돈사
의 출입구에는 소독조 시설.

2)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 및 소독위생
장비.

나. 종돈장은 사육중인 종

돈에 대한 관할 가축위생담당
기관의 검사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한 질병에 대하여 이상이 없
는 곳일 것.

다. 종돈 사육시설은 일반
돈 사육시설과 격리하여 설치
할 것.

라. 양돈업을 함께 영위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만 ·
포유 · 육성 · 종돈선발을 위
한 독립된 시설을 갖출 것 등
이다. **양돈**

본지 캠페인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합시다